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독점 공급

애플, 이례적으로 독점 공급 계약
주름 최소화 등 초격차 기술 주요
폴더블 OLED 시장 지각변동 예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독점 공급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이 특정 업체에 디스플레이를 전량 맡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적 우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드와 IT팁스터 등 정보기술(IT) 전문지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가칭 '아이폰 폴드')에 탑재될 폴더블 OLED 패널 공급사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최근 선정했다. 삼성이 공급할 물량은 약 1500만에서 2000만대 규모로, 내년 초 양산에 돌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가칭 '아이폰 폴드') 예상 렌더링 이미지. /맥머스 SNS 캡처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전경.

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고객사 관련 사항은 외부 유출이 금지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LGD), 중국 BOE 등 복수의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를 두는 ‘멀티벤더 전략’을 유지해왔다. 주요 부품의 경우 납품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곳 이상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폴더블폰 패널의 경우 애플은 전량을 삼성디스플레이에 맡기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첫 폴더블 모델만큼은 안정성과 품질을 최우선에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폴더블폰의 핵심 과제인 ‘화면 주름 최소화’ 기술력이 좌

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구조 특성상 주름이 발생하기 쉬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재·공정·구조 개선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부

터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폴더블 OLED를 공급하며 수년간 상용화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년 이상 누적된 양산 경험과 수율 관리 능력이 애플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며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이 삼성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독보적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폴더블 OLED를 대량 양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두 곳뿐이다. LG디스플레이도 애플과 함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동 개발해왔지만, 이번 1차 공급사 명단에서는 빠졌다. BOE는 기술력과 수율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은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5.5인치 외부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약 2100달러(약 328만 원) 수준으로, 삼성

전자의 갤럭시Z폴드6보다 300~400달러 비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계약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0% 수준까지 하락했던 폴더블 OLED 점유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2022년까지 80%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폴더블폰 출하량 증가율은 2.9%에 그쳤고, 올해는 가격 부담 등으로 4% 역성장이라고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애플의 폴더블폰 진입이 침체된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 도요타 ‘우수 공급사’ 선정

북미 전장부품 공급 역량 인정받아
글로벌 완성차 고객 협력 강화 방침

LG전자가 일본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로부터 북미 시장의 전장부품 공급 역량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도요타 북미법인의 ‘연례 공급사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수 공급사에 주어지는 ‘2024최고가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가 도요타의 우수 공급사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 북미법인은 매년 기술력과 품질, 원가, 공급 능력, 가치 혁신 등을 기준으로 협력사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공급사를 선정하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수급 차질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고품질·고성능의 전장부품을 적기에 공급했다. 공정 개선과 물류 최적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도 도요타와 함께 추진하며 북미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011년 내비게이션 박스 공급을 시작으로 도요타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도요타 전체 판매 실적의 30%를 차지하는 북미를 중심으로 차량용 통신모듈(텔레매틱스) 솔루션 공급을 확대했다.

LG전자의 텔레매틱스 제어장치는 5G 통신 기반 차량·사물간 통신(V2X) 솔루션과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능을 두루 갖췄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점유율 24.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커넥티드카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응해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LG전자의 혁신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LG전자가 도요타 우수 공급사에 선정됐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도요타 연례 공급사 비즈니스 미팅’에서 LG전자 VS북미법인장 오해진 상무(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WeConnectScience

질병앞에 거침없어야
과학이다

인류의 삶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신약으로 질병의 걱정을 없애자
과학으로 인류의 건강을 혁신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